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22년 11월 1일 | 책임조사역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300천 km <sup>2</sup> 	<b>인구</b> 1.1억 명 (2021) 	<b>정치체제</b> 대통령 중심제 	<b>대외정책</b> 실리적 외교정책 
<b>GDP</b> 3,941억 달러 (2021) 	<b>1인당GDP</b> 3,576달러 (2021) 	<b>통화단위</b> Peso 	<b>환율(U\$기준)</b> 49.25 (2021) 

- 필리핀은 태평양상의 타이완과 보르네오 섬 사이에 위치한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으로,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5~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발로 산업 전반이 침체하여 -9.5%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민간 소비 및 투자 회복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률은 5.6%로 반등함.
- 2022년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으로 당선됨.
- 필리핀은 1억 명 인구를 보유한 거대 내수시장으로서 미국과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ASEAN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편, 중국과는 전반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49. 3. 3 수교 (북한과는 2000. 7. 12 수교)

**주요협정** 소포우편협정('61), 항공운수협정('69),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교환('70), 문화협정('73), 무역협정('78), 경제기술협력협정('85), 이중과세방지협약('86), 과학기술협력협정('86), 범죄인인도조약('96), 투자증진보호협정('9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3), 형사사법공조조약('08), 무상원조기본협정('14),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16)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8,365,340	7,126,437	9,659,072	반도체, 석유제품, 동제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등
수 입	3,658,008	3,085,957	3,893,738	반도체, 산업용 전자기기, 동제품, 수동부품, 컴퓨터 등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816건, 4,783,377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6.3	6.1	-9.5	5.7	6.5
소비자물가상승률	5.3	2.4	2.4	3.9	5.3
재정수지/GDP	-1.6	-1.7	-5.7	-6.5	-5.4

자료: IMF

###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경기 회복 예상

- 필리핀 경제는 지난 10년 간 해외근로자 송금, 비즈니스 업무대행(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관광 산업 성장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연평균 5~6%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에 따른 민간소비 급감으로 -9.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아시아 평균 및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냄.

\* 기업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여 최고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비핵심 업무를 제3의 서비스업체에 하도급하는 아웃소싱 전문 산업을 지칭함. 대표적인 사업으로 콜센터, IT 서비스 지원, 온라인 교육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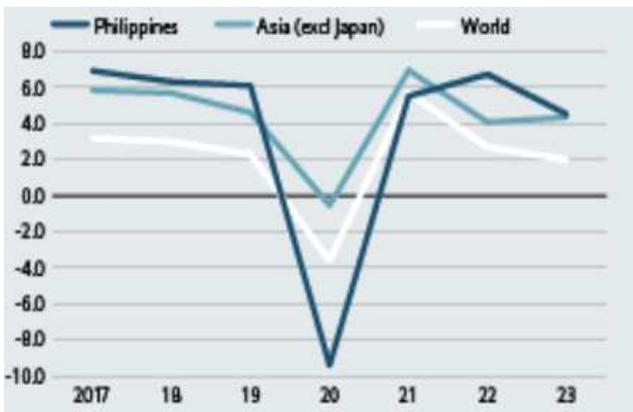
- 민간 소비 및 투자 회복에 따라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은 5.7%로 반등함. 필리핀 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경제개방에 따른 내수 회복,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 증가 등에 근거하여 7~9%로 잡고 있으나, IMF, ADB, World Bank 등은 6~7%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음.

\* 2022년 필리핀 경제성장률 전망: IMF 6.5%, ADB 6.0%, World Bank 6.4%, EIU 6.7%, IHS Markit 7.0%

-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8.3%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2분기에는 8.6%의 경제성장을 전망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소비 둔화로 전년 동기 대비 7.4%의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함.

[그림 1] 필리핀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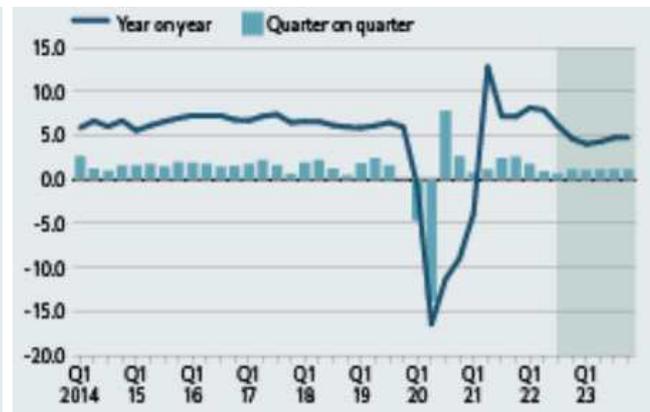
(단위: %)



자료: EIU

[그림 2] 필리핀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EIU

## 국내경제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폐소화 가치 하락으로 5%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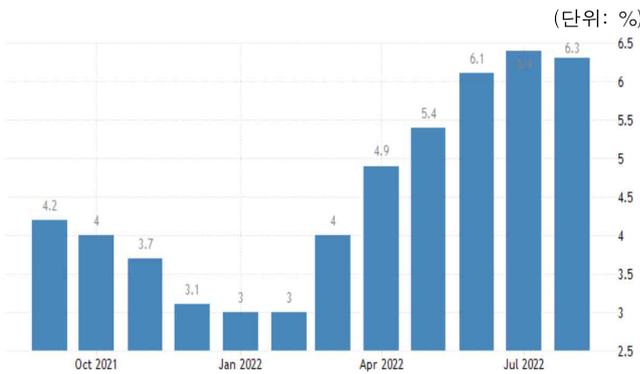
- 2022년 8월 말 필리핀 중앙은행은 필리핀의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폐소화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꼽히고 있음. 한편, 필리핀 정부의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 범위는 2~4%이나, IMF, EIU 등은 4~5%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예측하고 있음.

\* 달러화 대비 폐소화 가치: 49.81('21.11.15) → 58.91('22.10.13)

\*\* 2022년 필리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IMF 5.4%, EIU 4.9%, IHS Markit 5.2%

- 2022년 1~8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인상, 폐소화 평가절하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함.

[그림 3] 필리핀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Trading Economics

[그림 4] 폐소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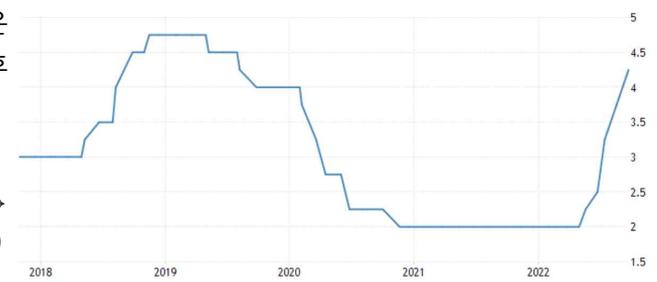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Maluta FX

- 한편, 2022년 9월 22일 필리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75%에서 4.25%로 0.5%p 인상함. 필리핀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2022년 5월 이후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함.

\* 2021.9월 2.0% → 2022.5월 2.25%(▲25bp) → 2022.6월 2.5%(▲25bp) → 2022.7월 3.25%(▲75bp) → 2022.8월 3.75%(▲50bp) → 2022.9월 4.25%(▲50bp)

[그림 5] 필리핀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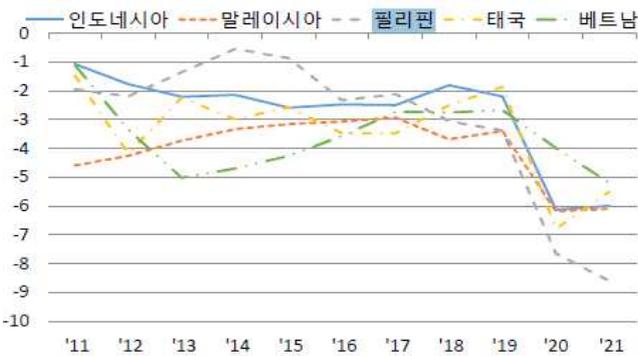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다양한 물가 상승 요인이 존재하고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자본 유출 및 폐소화 평가절하 압력이 커지는 만큼 필리핀 중앙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

### 인프라 사업 추진 등으로 당분간 재정수지 적자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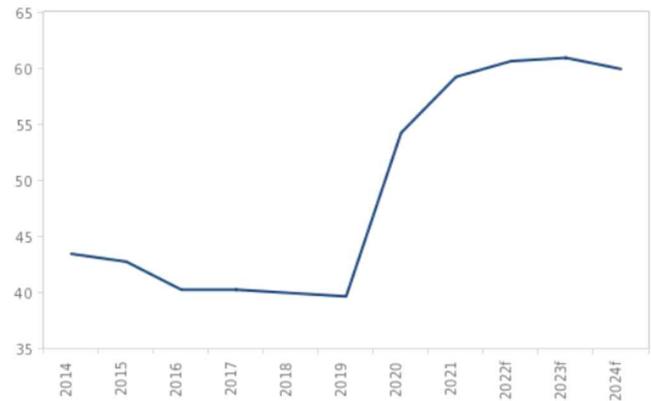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0년 -5.7%, 2021년에는 -6.5%의 적자를 기록함.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과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상승 완화를 위해 세금 감면 추진도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필리핀 의원들은 물가 상승 완화를 위해 연료 구매시 부과되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폐지 및 생필품 가격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임.
- 필리핀 정부는 2023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 3천억 페소(GDP의 22.2%)를 편성함. 2028년까지 연간 8% 경제성장 및 24%(2021년 기준)에 달하는 빈곤율의 감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은 교육,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한편, EIU 보고서('22.9월) 및 Fitch 보고서('22.7월) 등에 따르면, 필리핀은 인프라 사업 추진 및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다소 높은 편임(55.9%, '22.4월 기준). 필리핀 정부는 2028년 까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재정적자 비율을 각각 55.9%에서 51.1%로, -6.5%에서 -3.0%로 낮출 계획임을 밝힘.

[그림 6] 동남아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단위: %)



자료: EIU / KIEP

[그림 7] 필리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단위: %)



자료: Fitch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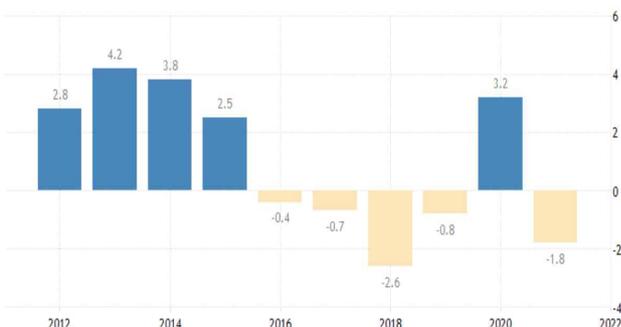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상수지	-8,877	-3,047	11,578	-6,009	-14,973
경상수지/GDP	-2.6	-0.8	3.2	-1.5	-3.7
상품수지	-50,972	-49,312	-33,775	-52,806	-63,581
상품수출	51,977	53,477	48,212	54,227	53,957
상품수입	102,949	102,788	81,987	107,033	117,538
외환보유액	69,382	78,051	96,466	94,721	82,751
총외채	78,997	83,618	98,488	102,881	101,071
총외채잔액/GDP	22.8	22.2	27.2	26.1	25.2
D.S.R.	7.9	8.0	8.2	9.0	8.7

자료: IMF, EIU, OECD

### 경제활동 재개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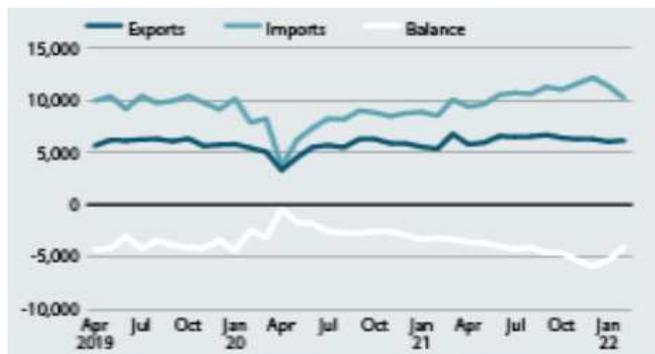
- 2020년 필리핀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동반 감소하였으나, 상품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면서 오히려 상품수지가 개선되어 2020년 GDP 대비 경상수지는 3.2%의 흑자를 기록함.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완화로 억눌렸던 상품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는 -1.5%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Fitch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및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및 폐쇄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의 경상수지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한편, 2021년 서비스수지 흑자는 관광 부문의 회복으로 전년 대비 1.6%의 소폭 증가를 기록함. 지난 5월 출범한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 산업 활성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8] 필리핀의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자료: Trading Economics

[그림 9] 필리핀의 분기별 상품수입·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IU

## 대외거래

###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 예상

- 2021년 말 필리핀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965억 달러, 월평균 수입액의 10.8개월분) 대비 1.8% 감소한 947억 달러(월평균 수입액의 8.4개월분)를 기록함.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품 및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및 폐소화 평가절하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 변동(억 달러, IMF) : 964.7('20) → 947.2('21) → 874.2('22.6월) → 827.5('22<sup>f</sup>)

## 외채상환능력

### 외채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

- 총외채잔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말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6% 안팎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 안팎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각각 9% 안팎과 100%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억 달러, OECD) : 790.0('18) → 836.2('19) → 984.9('20) → 1,028.8('21) → 1,010.7('22<sup>f</sup>) → 1,071.1('23<sup>f</sup>)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및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액 전망(백만 달러) : 9,002('21) → 9,141('22<sup>f</sup>) → 9,073('23<sup>f</sup>)

## 구조적취약성

### 해외근로자 송금과 BPO 산업 등 서비스업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구조

- 필리핀은 코로나19 이전 6~8%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빈부격차, 서비스업에 대한 편중, 취약한 제조업 등으로 경제성장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필리핀의 경제구조는 GDP의 6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반면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발달이 취약함.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및 BPO 산업은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BPO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에만 12만 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함. 다만, 필리핀의 BPO 산업의 경쟁력은 주로 인근 국가 대비 우월한 필리핀인들의 영어 구사능력과 낮은 임금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향후 자동화 기술, 로봇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음.

## 성장잠재력

### 젊고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광물자원 보유

- 필리핀의 2021년 인구 추정치는 약 1.1억 명으로 ASEAN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2.7억 명)에 이어 2위에 해당됨.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며,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8%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노령인구 비율이 낮은 편임. 또한, 미국 식민지 경험과 영어 교육의 영향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하여, ASEAN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임.
- 화산활동과 지각변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필리핀은 광물자원 부국으로 주요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총매장량 가치 8,400억 달러 추정)이나, 정부의 환경보호 우선 정책과 불안정한 사업개발 여건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음.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필리핀의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68억 달러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86억 달러)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완화에 힘입어 105억 달러를 기록함.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소매업자유화법, 공공서비스법 등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법들을 개정함.
- 동 법들의 주요 개정 내용은 ①외국 기업의 소매업 제한금액 하향(250만 달러 → 50만 달러), ②이동통신, 교통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지분의 100% 외국인 소유 허용, ③외국인 수출기업의 내수시장 매출 제한 상향(40% → 60%) 등임.

## 정책성과

### 인프라 구축, 외국인투자 유치 등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 계승

- 2017년 4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 행정부는 2022년까지 필리핀을 상위 중소득국에 진입시키겠다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두테르테노믹스'(DuterteNomics)를 발표함. 이 정책은 필리핀의 열악한 인프라가 사업환경 개선에 주요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을 목표로 도로, 교량,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을 골자로 하는 'Build-Build-Build' 프로그램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함.
- 2022년 6월 30일 마르코스 주니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인프라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여, 전임 정부의 주요 인프라 정책인 'Build-Build-Build'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9월 필리핀 공공사업부 수석차관에 따르면 'Build-Build-Build' 프로그램은 두테르테노믹스에 따른 6개년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으로 119개 대표(flagship) 프로젝트 중 금년 말까지 15개 사업만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사업\*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119개 대표 프로젝트 중 51개는 건설 중, 26개는 건설 전 단계, 27개는 계획 단계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으로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가 증가한 점, 폐소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한 점, 물가가 계속 상승 중인 점 등을 고려 시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한편, 필리핀 정부는 2021년 12월 세제개혁법(CREATE Act)을 개정하여 외국 법인, 국외 거주 외국인 법인 등을 포함한 법인세를 기존 30%에서 25%로 인하하였음. 또한, 2022년 3월 외국인투자법(FIA, Foreign Investments Act)을 개정하여 외국 기업의 직접 의무고용 인원을 현행 5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하게 하며,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필리핀 내에서도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두테르테 전 정부에 이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첫 국정연설을 통해 본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정책 방향

- 2022년 7월 25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①방역조치 해제 및 관광업 회복을 통한 경제회복, ②농업 분야 문제 해결, ③한 자릿수 빈곤율 달성 및 정부부채 비율 감소 등을 주로 강조함.
- (경제회복)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새로운 관광지 발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공항, 도로 등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임.
- (농업분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문제 개선을 위해 농업 현대화를 통해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함.
- (빈곤율 및 부채율 감소)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1년 기준 23.7%인 빈곤율을 자신의 임기 말인 2028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추고, 정부부채는 2025년까지 GDP 대비 60%로 낮출 계획임.

## 정치안정

### 2022년 5월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마르코스 주니어, 부통령으로 사라 두테르테 각각 당선

- 2022년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58.7%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가 61.5%의 득표율로 부통령에 당선됨.
- 마르코스 주니어는 사라 두테르테와 러닝메이트를 형성하여 SNS를 활용한 이미지 정치, 아버지 마르코스의 통치 시절에 대한 미화 등의 선거전략으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추정됨. 다만, 마르코스 독재가문의 재집권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마찰 등 정치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대규모 시위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6월 30일 취임식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전임자의 인프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계승할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안정

### 경제성장률 대비 높은 실업률은 만성적인 문제

- 필리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06년 이후 매년 5~7% 수준의 높은 실업률을 보여왔음. 실업률은 2022년 7월에 전월 대비 0.8%p 하락한 5.2%를 기록하는 등 하락 추세이나 여타 ASEAN 회원국들보다 높은 수준\*임.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농업 부문이 매우 취약해 일자리가 서비스업종에 편중되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업률('21년, IMF): 필리핀 7.8%, 인도네시아 6.5%, 말레이시아 4.7%, 베트남 2.7%, 싱가포르 2.6%, 태국 1.5% 등

- 필리핀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 완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등의 정책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물가상승 압력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의 증가는 고용 위축과 해고 증가로 이어져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함.

\* 필리핀은 2022년 5월 14일 최저임금을 33페소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는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농업분야 노동자는 일 570페소(9.72달러), 농업 분야 노동자는 일 533페소(9.09달러)로 조정됨.

[그림 10] 필리핀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필리핀 통계청 / Take-profit.org

[그림 11] 필리핀의 최저임금 추이(비농업)

(단위: 페소화)



자료: Trading Economics

## 사회안정

### 언론의 자유 및 인권 침해 등으로 민주주의 위기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순위에서 필리핀은 2022년에 조사대상 180개국 중 147위를 기록하여 작년보다 9단계 하락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2018년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 래플러(Rappler)의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2020년 6월 래플러의 편집장이었던 마리아 레사(Maria Ressa)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동년 7월에는 필리핀 의회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했던 필리핀 최대 방송사 ABS-CBN의 방송 사업권 갱신을 거부함. 2022년 9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직접 가짜 뉴스를 퍼트려 독재 가문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가 비판적인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 필리핀의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 134위('19년) → 136위('20년) → 138위('21년) → 147위('22년)

- 2016년부터 두테르테 정권의 인권 탄압과 고위 관리 및 경영인의 부패를 보도한 마리아 레사는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레사는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권위주의적인 필리핀 정권을 폭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활용한 인물”이라며 선정 사유를 밝힘.
- 2016년부터 필리핀 정부가 진행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2018년 예비조사 결과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히며, 2011년 11월 이후 제기된 필리핀 정부의 고문을 포함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혐의도 함께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필리핀 정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유예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진상 규명이 현재까지 연기됨.
- 국제형사재판소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 조사의 재개를 요청했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은 반인륜 범죄가 아닌 공권력을 적절히 사용한 사례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한편, 독재자로 불리는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 집권기가 인권 유린과 부패가 만연한 필리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로 기록된 상황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과거로의 역행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큼.

### 방사모로 무슬림 자치구(BARMM)에 대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입장 주목

- 지난 50여년 간 남부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무력분쟁은 필리핀이 불안정한 국가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심으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경제 교류 및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필리핀 남부 지역의 분쟁은 소수민족 분쟁으로 분류되는데, 남부의 모로족은 가톨릭이 지배적인 필리핀에서 소수인 무슬림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류 사회로부터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주변화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군 단체와 평화 협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2017년 5월에는 IS를 추종하는 반군이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市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함. 이에 따른 대응으로 필리핀 정부는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군을 투입해 토벌 작전을 감행함. 계엄령은 논란 속에 3차례 연장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해제됨(2년 7개월 지속).

## 사회안정

- 2019년 2월 26일 필리핀 정부는 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해 기존의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ARMM)를 '방사모로 무슬림 자치구(Bangsamoro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BARMM)'로 전환하고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함. BARMM은 기존의 ARMM 관할구역 외에도 코타바토市(Cotabato City)와 북코타바토 주에 있는 67개 바랑가이(Barangay)<sup>1)</sup> 중 63개 바랑가이를 관할구역에 포함함.
- BARMM은 2019년 비준된 '방사모로 자치구 기본법(Bangsamoro Organic Law)에 따라 운영되며 이슬람 자치의회를 구성할 선거는 당초 2022년 5월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 제한 등으로 인해 2025년으로 선거를 연기함. 2025년 선거 전까지 방사모로 임시당국(Bangsamoro Transition Authority)이 권한을 위임받아 체제 전환을 준비할 예정임. 한편, 자치정부는 이슬람 자치의회가 주도하는 독자적인 행정부(내각책임제)를 구성하고 입법, 행정, 재정권을 행사하지만 국방, 외교, 국제무역, 통화 발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부의 경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본법으로 하되 이는 무슬림에게만 적용됨.
- 자치지역 내부 갈등으로 체제 전환이 완전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같은 대규모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다만,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상원의원 재임 시절 BARMM 기본법은 반(反)헌법적이라며 거부한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방사모로 평화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 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입장은 향후 BARMM의 운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117위 기록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필리핀은 33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115위보다 2단계 하락한 결과로, 베트남 및 태국보다는 낮고 캄보디아보다는 높은 순위임.
  - ※ ASEAN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말레이시아(48점, 62위), 베트남(39점, 87위), 인도네시아(38점, 96위), 태국(35점, 110위), 캄보디아(23점, 157위) 등
- 독재와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마르코스 가문의 재집권으로 인해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음.

1) 바랑가이는 필리핀의 가장 작은 행정단위로, 한국의 동(洞)과 유사한 규모의 마을을 지칭함.

## 사회안정

### Moody's는 필리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필리핀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높은 노출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회복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필리핀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요소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태풍을 포함한 기후 관련 재난 발생률이 높고 많은 강수량이 빈번하게 홍수로 이어진다는 점, 노동인구의 상당한 비중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으로 인한 열피로(heat stress)\*에 대한 높은 취약성, 깨끗한 식수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성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하여 환경 영향을 E-4(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발한 증상이 크고 수분과 염분 보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여 탈수 상태에 이른 것을 지칭함.
- (사회) 최근 일정 부분 완화되었음에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빈곤, 낮은 소득수준,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큰 개발격차와 소득 불평등, 비공식 부문 고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구조,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및 기본 서비스, 주거 시설 부족 등을 반영하여 사회 환경을 S-4(highly negative)로 평가함.
- (지배구조)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성이 정치적·법적 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을 상쇄하는 동시에 환경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 부분 보유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특별한 위험을 노출하지 않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G-2(neutral-to-law)로 평가함.

## 국제관계

###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ASEAN 국가들과도 협력 강화

- 2022년 9월 22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 경제 상황 등을 논의하였으며, 미국이 필리핀의 최고 동맹국임을 밝힘. 회담 종료 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3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대한 확약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필리핀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2년 9월 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필리핀 해상 노선을 활성화하고 항공 직항편을 개설하는 등 양국 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함. 이어 9월 6일에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적 간호사 채용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키로 하는 등 ASEAN\*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공조와 협력을 위해 노력 중임.
- \* ASEAN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간 전반적인 상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분쟁 지속

- 2012년 중국은 필리핀이 통제하는 스카보로 암초를 무단 점유하고 이른바 '구단선(九段線)'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오랜 기간 주장하고 있으며,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도 중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분쟁 당사국 이외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중국은 2022년 5월 1일부터 남중국해 지역에 일정 기간 금어기를 설정하는데, 금어 지역이 필리핀이 자주권과 관할권을 가진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2년 6월 취임한 이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만 50회 이상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는 중국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한편, 필리핀은 2022년 10월 4일부터 미국과 남중국해 부근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으며, 이는 해상 방어력 강화 및 중국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필리핀은 1984년 최초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이후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에 걸쳐 재무재조정을 받는 등 한동안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음.
- 2022년 3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은 단기 16억 달러, 중장기 9.2억 달러로 총 25.2억 달러임. 이 중 연체액은 중장기 20만 달러로, 연체비율(0.008%)이 극히 미미하여 채무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2.06)	3등급(2021.06)
Moody's	Baa2(2022.09)	Baa2(2022.02)
Fitch	BBB(2022.05)	BBB(2022.02)

### 국제신용평가는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는 필리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양호한 외채비중 및 정부채무 비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은행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21년 7월 Fitch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재난 대응정책 완화에 따른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함.

- 필리핀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연 5~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에는 팬데믹의 여파로 산업 전반이 침체하여 -9.5%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이후 2021년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2021년 경제성장률은 5.7%로 반등하였음.
- 인프라 건설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20년 -5.7%, 2021년 -6.5%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과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지는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3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은 단기 16억 달러, 중장기 9.2억 달러로 총 25.2억 달러임. 이 중 연체액은 중장기 20만 달러로, 연체비율(0.008%)이 극히 미미하여 채무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